

영광 e-모빌리티 기업 해외 진출 속도

영광군, 5개 기관과 업무협약 기술·인프라 지원·홍보 등 강화 "수출 활성화 신규 사업 적극 발굴"

국내 'e-모빌리티 산업 거점'인 영광군 대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는 초소형 4륜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간편 이동 수단을 뜻한다. 매년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9일 영광 지식산업센터에서 광주 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5개 기관이 '전남 e-모빌리티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모빌리티 특화산업단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 일대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지난 4년간 연구개발과 주행 실증을 추진한 결과 총 5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22년 기준 17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바탕으로 e-



영광 대마산단 이(e)-모빌리티 총출시시험장.

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5개 협약 기관이 영광을 중심으로 전남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사업 지원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인프라 지원', '홍보·수출 지원' 등을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

5개 기관은 협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 개최를 통해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협약이 영광 e-모빌리티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e-모빌리티 해외 수출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2000만 송이 '프렌치 라벤더' 향연

17~26일 신안 퍼플섬 축제

신안 퍼플섬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2000만 송이 '프렌치 라벤더' 향연이 펼쳐진다.

퍼플섬 라벤더 축제가 오는 17~26일 신안군 박지도에서 열린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이색적으로 보라 옷 컨테스트를 열어 입상자와 참가자에게 신안군 특산물인 천일염을 시상할 계획이다.

퍼플섬은 2021년 유네스코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후 연간

40만여 명이 다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거나 들어본 곳으로 알려졌다.

보라색 마니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전국 각지에서 보라 옷을 맞춰 입고 섬을 방문하는 게 유행처럼 자리 잡았다.

2021년 8월13일 퍼플섬 선포 이후 누적 방문객 수는 100만 명에 달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퍼플섬은 5월 라벤더를 시작으로 6월 벚꽃마련초, 9월 아스타 등 연중 보라 꽃이 끊이지 않는 섬"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철없는 무화과' 재배 나선다

탄산시비 겨울철 생산 시험연구

영암군이 특산물인 무화과를 일 년 내내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대 도입한다.

영암군은 탄산시비로 무화과를 겨울에 재배하는 시험연구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영암군은 겨울 무화과(사진) 시험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역농업연구기반·전략작목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 사업의 연구과제로 무화과 조기 재배 첨단 농장(스마트팜) 연구에 나섰다.

무화과는 재질이 8~11월인 과일이다. 온실(하우스) 재배를 하면 7월에도 수확할 수 있다. 수확기를 지나면 즙, 짠, 말랭이 등으로 소비된다.

파프리카, 딸기 같은 원예작물은 하우스로 겨울 재배를 하거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탄산시비를 한다.

탄산시비는 온실 안 이산화탄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 광합성을 촉진하는 재배법이다.

영암군이 이 탄산시비 재배 방식을 무화과에 적용하고 있다.

연구 결과 탄산시비를 한 개체가 하우스 일반재배를 한 개체보다 줄기 길이가 길고, 잎과 열매의



수도 많았다.

영암군이 지난날 8월부터 이달 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화과를 수확해보니 탄산시비 무화과 평균 무게는 88.1g, 당도 15브릭스(Brix)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무화과 수확 초기 평균 무게 87.7g, 14.3브릭스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화과를 겨울에 재배하면 가격은 높아지나 재배 비용이 많아 아직 탄산시비를 농가에 적용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된다"며 "겨울철 재배뿐만 아니라 수확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체계적인 연구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무화과 원산지 영암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

무안 오승우미술관 전시 온라인 관람 하세요

정부 공모 스마트미술관 구축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 온라인 가상현실 미술관과 스마트 전시해설(도슨트) 앱을 선보인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스마트미술관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미술관은 '스마트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가상·가시화된 전시해설(도슨트)을 체험할 수 있다.

미술관 가상현실(VR) 관람을 통해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을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증강현실(AR) 어린이미술관을 운영하며, 오승우 화백의 '심장생도', '꽃과 소녀', '한국의 백산'을 주제로 한 증강현실 작품을 미술관 카페테리아 공간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스마트미술관 구축 기념으로 지난 11일부터는 오승우미술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도장 찍기(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완주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모바일 앱을 실행해 작품 옆에 부착되어있는 바코드(QR)를 촬영하고 도장 찍기를 완주한 뒤 안내대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갈치 낚시·고택 체험... 낭만 항구 목포서 일주일 살아볼까

1~2회차 30팀 16일까지 신청

신안군과 공동 1004섬 관광도

일주일간 목포·신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주일 살기'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목포시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인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먼저 즐기는 휴가,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목포 일주일 살기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추진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 여행 경향에 맞춰 관광객이 직접 목포에서 살아보며 낭만 항구 목포의 경험을 소셜 미디어(SNS)에 공유·홍보하면 된다.

목포 일주일 살기는 비수기에 '먼저 즐기는 휴가'를 주제로 1~2회차를 진행한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 '낭만 항구 밤바다'를 주제로 한 3~4회차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를 만끽한다.

목포시는 회차별로 30개 팀(팀당 1~4인)을 모집한다. 1~2회차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하면 된다. 1회차는 오는 24일부터 6월3일까지, 2회차는 6월5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3~4회차는 오는 8월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체류 기간(4~6박) 팀별 1박당 최대 5만원의 숙박비를 받는다. 주요 관광지 입



지난해 '목포·신안 일주일 살기' 참가자들이 목포 요트체류와 요리 교실에 참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장료를 할인받고 밤바다 갈치낚시, 고택체험 등 지역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후에는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올리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해 참가자들에게 신안군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즐기는 휴가, 목포 일주일 살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목포문화재단 누리집(mpcf.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거나 전화(061-245-8833)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고, 생활인구가 증대되어 정년이 찾는 큰 목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1 인종기간 | 2020.10.19 ~ 2024.10.18

광주역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입원문의
062) 720-2000

대한한사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31129-중-63255호

동행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